국제인권동향 30호 (7.1~7.15)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2009. 7. 17

주요소식

1.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 이임식 [7.8]


(안경환 위원장)

▹"새 정부의 출범 이래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강한 책임을 통감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 아래 새로 취임할 후임자로 하여금 그동안 심각하게 손상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인권의 위상을 회복하고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어"

▹영문 발췌: "I truly believe that my early resign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appointment of a competent new Chairperson, will pave the way for the Commission to have more opportunities to restore Korea'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consolidate Korea's leadership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We are all well aware that the path to human rights has no end. We also know of the immutable truth that the short lived nature of political power markedly contrasts with the permanence of human rights. I hope that we will all march firmly forward on the lonely but honorable path to human rights and that the fire of our ideals will light the way ahead"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SEQ_ID=593608&flag=VIEW

NI 소식

1. 영국평등인권위원회, 영국 청소년 미술대회 개최 [7.2]

▹2009 영국 청소년 미술 대회(Young Brits at Art), 11세부터 19세의 청소년 작품 공모, 오늘날 영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도전하는 장 마련

▹총 1,639점의 작품 접수, 10점의 우수 작품 선정

▹노인, 폭력 등의 주제부터, 날씨, 현대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 접수. 선택과 자유가 풍부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대다수 작품의 잠재적 메시지

▹작품들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민족, 인종 혹은 종교 보다는 음악이나 밴드 같은 현대 문화에서의 개인적 취향 등 개인성을 통해 자신을 정의함을 보여줌

▹2010년 우리 공간(Our Space) 청소년 캠프 계획: 14세부터 15세까지의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과 함께, 모두를 위한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술과 자신감, 아이디어를 제공, 공유

http://www.equalityhumanrights.com/media-centre/winners-announced-in-national-youth-art-competition/

2. 2009 호주 인권상 [7.7]



▹캐시 브랜슨(Cathy Branson QC) 호주 인권위원장, "호주의 인권 보호와 평등 개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노력을 인식하고 치하할 때"
▹일반인 인권 훈장, 청소년 인권 훈장과 함께, 법, 지역 사회(단체), 지역 사회(개인), 문학(비소설), 인쇄 매체, TV, 라디오의 7개의 카테고리별 후보자 선정

http://www.humanrights.gov.au/about/media/media_releases/2009/61_09.html

3. 아일랜드 인권위, 2008년 연간 보고서 출간 [7.9]

▹무리스 매닝(Maurice Manning) 위원장, 2008년 위원회의 목표와 성과, 2009년 예산의 32%의 삭감으로 직면한 도전들 언급하며 비판, "경제 위기는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효과적이며 독립적인 인권위를 가지는 것이 중요"
▹2008년 인권위 활동의 주안점은 법률, 정책, 정의 체계에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 신장
-법률 심층 조사
-법정에서의 인권 기준 보호
-교육과 훈련에서의 인권 신장
-인권위 예산 절감에 따른 영향 조사

http://www.ihrc.ie/press_releases/newsarticle.asp?NID=313&NCID=12&T=N&Print=

4. 뉴질랜드 인권위, 장애인의 육상교통시설 이용 경험 조사 [7.10]



▹장애인의 이동에 관한 보고서 발간 3주년. 보고서 목적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육상교통시설 이용에 관한 설문 실시
▹장애인, 지역 정부, 중앙 정부 부처, 공공 교통 시설 제공자, 전문 기관 등으로부터 정보와 자문 구할 것

http://www.hrc.co.nz/home/hrc/disabledpeople/inquiryintoaccessiblepubliclandtransport/whatsnew.php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1. 2009년 인권논문·에세이 및 인권실천 우수사례 공모

▹주제: 논문, 에세이, 인권실천 사례
▹자격
○ 인권논문
- 학생부 : 대학 및 대학원생
- 일반부 :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 인권에세이
- 초,중,고 연령 청소년(학생 포함)
○ 인권실천 우수사례
- 교원분야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
- 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 부문(장애 및 정신장애인, 다문화 등)

- 해당분야 인권실천을 실시한 교육기관, 시민단체, 인권교육활동가, 공무원 등

▹일정

- 접수기간 : 2009. 9. 1.(화) ~ 9. 18.(금) ※ 에세이는 수시접수 가능
- 수상작 발표 : 2009. 10월경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국제인권 NGOs

1. 엠네스티 인터네셔날, 인도 고등 법원 동성애 비 범죄화 환영 [7.3]



(기뻐하는 인도 시민들, 엠네스티)

▹엠네스티 마두 말호트라(Madhu Malhotra) 아시아 태평양 프로그램 부국장, "인도인들이 스스로의 성적 성향에 대한 자유에 중요한 첫 발을 디뎌" "과거 영국 식민지법이 인도의 국민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와"

▹19세기 영국 식민지 법, 동성애를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육체적 관계"로 규정. 이 법률은 인도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단체들을 억압하는데 악용되어 와

▹인도 고등 법원, 동성애를 범죄화 하는 법률 337조는 현재의 과학과 전문적 논리와 상응하지 못해. 에이즈창궐의 예방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근거 없어"

▹엠네스티, 인도 정부에 경찰과 기타 공무원에 의한 악습과 차별을 규명하고,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거주, 취업, 의료 서비스 등 사회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할 것 촉구

▹아동 성폭력을 범죄화 하는 특정 법률은 없어, 법률 337조를 이에 활용할 것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news/india-ruling-against-sodomy-laws-first-step-equality-20090703

2. 인권정책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성과 인권(Sexuality and Human Rights)" 출간



▹성적 권리의 내용과 그에 관한 논의의 진보, 새로운 문제적 이슈 제시

▹위원회, 2008년부터 '성과 인권'을 주제로, 인권의 관점에서 성적 권리에 관한 정책을 세울 때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의의 진보를 이루는 노력 진행

http://www.ichrp.org/

3. 휴먼라이트와치(Human Rights Watch), 중국 정부에 우루무치 사태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 촉구 [7.10]

▹중국 당국, 우루무치 폭력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보다 우루무치 지역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위구르족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평화적 시위에 중국 정부가 최소 20,000명의 군대 투입

▹중국 정부와 지역 당국, "시위 조직 단체와 폭력을 일으킨 집단에 사형 집행 방법을 모색할 것"

▹정부 성명과 언론 보도 또한 한족에 대한 공격에만 초점, 위구르족에 가해진 폭력에 대한 논의나 보도는 전무

▹7월 5일 폭력 사태 현장에서의 보안 부대의 역할도 불분명. 폭력 사태를 막는 데 있어서 잘못이 있

는 부대를 가려내거나, 임무 수행에 대한 논의 전무
▹후진타오 국가주석, 시위사태 주동자의 엄중 처벌과 폭력행사 범죄분자의 엄중처벌 지시
http://www.hrw.org/en/news/2009/07/10/china-security-build-foreshadows-large-scale-crackdown

유엔 인권 뉴스

1. 여성에 대한 투자,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 [7.11]


(인도여성들이 글쓰기 교육을 받고 있다, 유엔뉴스센터)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 UNFPA) 도라야 아메드 오베이드 이사, 세계 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를 맞아 연설, "세계 빈곤 인구의 다수는 여성이며, 경제 위기 이후 그들의 빈곤과 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 "사회적 투자와 여성의 임신, 건강에 대한 보호가 없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 질 것"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1444&Cr=maternal%20mortality&Cr1=

2.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세계 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에이즈와 싸우는 2백만 명의 치료 도와 [7.8]



▹기금 운영담당 미쉘 카자킨(Michel Kazatchkine), "2002년 기금 시초 단계에서는 개발 도상국의 극소수만이 에이즈 등에 대한 질병 치료를 받아," "기금을 통해 질병 치료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지만, 더 많은 노력 필요"
▹540만 명의 결핵 환자에 치료 지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8천 8백만 개의 모기장 전달
▹기금을 통해 2002년부터 140개국의 8천만 인구가 에이즈 치료와 상담을 받았으며, 4백만의 에이즈 고아와 어린이들이 기본적 보호를 받아
▹유엔, 전 세계의 수천 개의 우체국 활용, 매일 7,400의 전염이 이루어지는 에이즈에 대한 예방 인식을 돕기 위한 캠페인 시작할 것
▹작년에 비해 30% 증가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1407&Cr=global+fund&Cr1=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1387&Cr=hiv&Cr1=aids

3. 빌 클린턴(Bill Clinton) 아이티 유엔 특사(UN Special Envoy to Haiti), 첫 임무 시작 [7.6]



▹아이티 3일간 방문, 정부 인사들 만나 허리케인, 고용, 기초 사회 보장을 위해 국제 사회가 할 수 있는 노력 논의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한 유엔, 시민 사회 단체, 국제 기부 단체들과 협력 사항 논의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1398&Cr=haiti&Cr1=

4. 유엔-아프리카연합 합동평화유지군(UNAMID), 수단 지역에 여성 피난민 센터 재개소 [7.2]

▹아부 쇽(Abu Shouk) 지역 난민촌, NGO에 의해 운영되다 작년에 패소
▹합동평화유지군, 다퍼 정부 사회부와 협동, 피난민 센터 재개소

▹ 피난 여성들에 직업 기술, 읽기 교육, 성교육 지원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1359&Cr=darfur&Cr1=

5. 반기문 총장, 온두라스 사태* 해결을 위한 코스타 리카 대통령의 노력 지지 [7.14]



(코스타 리카 아리아스 대통령, 유엔뉴스레터)

▹ 오스카 아리아스(Oscar Arias) 코스타 리카 대통령과의 대담을 통해, 온두라스 정치 당 간의 화해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협력 제안

▹ 유엔, 온두라스 정부 당국과 고등 법원 비난, 쿠테타에 대한 법적인 해결 촉구

*호세 마누엘 젤라야 로살레스 (José Manuel Zelaya Rosales) 온두라스 대통령이 6월 29일 군세력에 의해 퇴각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1457&Cr=honduras&Cr1=

기획연재 ⑰ 나라별 국가인권기구 (NI) 소개

오스트리아 (Austria)	
공식명칭	The Austrian Ombudsman Board
설립근거	연방 헌법 아래 설립
위원구성	▹ 옴부즈맨 3인 (의회 임명, 임기 6년) - Mr. Kostelka - Ms. Brinek - Ms. Stoisits ▹ 의장은 매년 돌아가면서 수임하며, 주로 행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음 ▹ 다른 중요한 업무는 모두 공동으로 관리됨
위원회기능	▹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침해 조사 ▹ 국가기관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 시민들의 청원에 도움 제공 ▹ 진정 접수 및 조사
ICC 승인등급	B (2000년)